■ 민족문화연구 제86호(2020.02.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357-390.
http://doi.org/10.17948/kcs.2020..86.357

# 국가건설기 북한의 역사교육체계와 교육이념*
##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김선호(金宣浩)**

목 차

1. 머리말
2. 해방 이후 북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3. 북한 역사교육체계의 구성과 내용
4. 북한 역사교육의 원칙과 이념
5. 맺음말

국문초록

북한의 정치세력은 해방 직후부터 새로운 국가 건설에 필요한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7월 7-8일에 교원대학・전문학교・종합대학・의학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했고, 북한지역에는 1946년 12월까지 19개 기술전문학교, 9개 사범전문학교, 4개 대학이 설립되었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8년 7월부터 단과대학을 독립시켜 2개년 경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고등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다. 그 결과 1949년 9월까지 15개의 정규 주간대학이 설립되었고, 대학생은 12,300명으로 급증하였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302838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해방 이후 북한의 역사교육정책은 일제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학교에는 역사과목이 개설되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역사과 졸업생들이 역사과목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에는 력사문학부와 인민역사과가 설치되었으며, 세계사과목과 조선사과목이 개설되었다. 또한 북한의 행정당국은 교과서를 새로 편찬했는데, 그 목적은 일제 잔재의 청산, 노동에 대한 인식과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인재의 양성, 소련의 문화를 도입해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이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교육자들은 1947년부터 소련의 사회주의 교육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들은 학생들의 사상과 사회적 활동능력이 교육을 통해 생성된다고 인식하였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상을 개조함으로써 국가 건설에 필요한 '근로자'를 만들려고 구상하였다. 이에 따라 역사교육에서도 직관적인 교육재료와 현대사실・해방투쟁관이 설치된 박물관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역사발전의 필연성을 인식시키고 애국주의사상을 심어주려 하였다. 북한의 정치세력이 애국주의사상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학생들의 애국주의를 건국열로 승화시켜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인민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주제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김일성종합대학, 평양교원대학, 중등교원양성소, 조선역사편찬회, 북조선중앙역사박물관, 마르크스레닌주의, 콘스탄틴 우신스키.

## 1. 머리말

북한의 정치세력은 1945년에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역사교육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의 하나로 중시하였다. 이 같은 사고의 저변에는 일제가 '조선사(朝鮮史)'를 연구하고 편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허위로 기술함으로써, 역사를 조선인에게 일본정신을 주입시키는 무기로 악용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정권기관은 해방 직후부터 "조선민족의 사상을 교육하는 진정하고도 과학적인 조선민족의 역사"를 편찬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1] 식민주의 역사학의 극복과 함께 민족적 역사학의 구축과 그에 따른 교육이념이 요청된 것이다.

1)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朝鮮歷史編纂會에 關한 決定書」,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5권, 국사편찬위원회, 1987, 673면.

북한정치세력은 해방 이후에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역사교육을 통해 새로운 역사관을 가진 '인민(人民)'을 육성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역사교육체계와 교육이념을 정립하기 위해 역사교육에 관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점에서 국가건설기 역사교육은 북한정치세력의 국가건설론(國家建設論)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북한의 정권기관은 특히 대학 등 고등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 북한에서는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간부가 부족했으며, 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고등교육이 절실하였다. 북한의 정치세력은 먼저 종합대학을 창설하고, 이를 토대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전문대학을 설립하려고 계획하였다.[2)]

북한의 역사교육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적지 않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크게 보아 역사학계와 교육학계에서 연구가 활발하였다. 먼저 시기측면에서는 1945년부터 1970년대에 걸친 역사교육의 변화과정이 해명되었고, 주제측면에서는 역사관・역사학과 역사교육의 관계가 주목되었다. 다음으로 북한의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1960년대까지 전체적인 변화과정과 그 안에서 소련의 영향이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김일성대학(金日成大學)을 중심으로 특정 대학의 창립과정과 교수진의 구성, 북한의 대학에 끼친 일제와 소련의 영향 등이 해명되었다.[3)]

그런데 선행연구는 대부분 1950년대 이후 북한의 역사교육과 고등교육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가건설기에 대한 연구는 부진한 편이다. 물론

2) 김일성, 「종합대학을 창설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384면.
3)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형찬, 「북한 고등교육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북한의 고등교육(1)」, 『대학교육』 제44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0; 최용규, 「북한의 역사관과 역사교육」, 『사회과교육』 제26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1993; 김기석,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에 관한 일 연구」, 『교육이론』 제10권 1호, 서울대 사범대학, 1996; 이경규, 「북한의 역사학과 역사교육」, 『현대사상연구』 제7호, 대구효성가톨릭대, 1997; 신효숙, 「해방후 북한 고등교육체계의 형성과 특징—김일성대학의 창립과 운영」, 『북한연구학회보』 제2권 2호, 북한연구학회, 1998;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개혁」, 『현대북한연구』 제2권 1호, 경남대 북한대학원, 1999; 김근배,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과 분화—과학기술계 학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2권 2호, 한국과학사학회, 2000; 김기석, 『一卵性 雙生兒의 탄생, 1946: 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 교육과학사, 2001; 신효숙, 「북한사회의 변화와 고등인력의 양성과 재편(1945-1960)」, 『현대북한연구』 제8권 2호, 북한대학원대, 2005; 김근배, 「북한 함흥의과대학 교수진의 구성, 1945-48」, 『醫史學』 제24권 3호, 대한의사학회, 2015; 정근식・김윤애・임수진, 「북한에서 소련형 대학 모델의 이식과 희석화」, 『아시아리뷰』 제7권 1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017.

국가건설기에 관한 연구도 제출되었지만, 주로 김일성대학과 일제・소련의 영향에 집중되었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국가건설기 북한 역사교육체계의 형성과정을 독립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으며, 이로 인해 초기 역사교육체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이 시기에 북한의 교육현장에서 실시된 역사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도 밝혀지지 않았다. 국가건설기 역사교육은 북한 역사교육의 기원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새로운 자료를 통해 국가건설기에 형성된 북한의 역사교육체계와 교육이념을 해명하는 것이다. 첫째, 이 글에서는 북한의 정치세력이 해방 이후에 고등교육체계를 수립하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북한 역사교육체계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각급 학교에서 역사과목・역사과가 설치된 현황과 교과목 구성을 파악하고, 교과서의 편찬과정과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교육당국이 설정한 역사교육의 원칙을 확인하고, 역사교육에 관철된 교육이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정부가 '민족간부'로 육성할 학생들에게 심어준 역사관을 추론할 것이다.

이상의 주제를 해명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주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소장된 미군노획문서(美軍鹵獲文書 : Records Seized by U.S. Military Forces in Korea)를 활용하였다. 그중에서 특히 1945년 이후 북한의 교육정책과 역사교육에 관련된 규정・교재・논문・잡지・이력서・학적부 등을 새로 발굴해서 활용하였다. 또한 러시아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ЦАМО)에 소장된 북한 관련 자료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 2. 해방 이후 북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북한의 정치세력은 해방 직후부터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민족간부를 양성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해방 직후 북한정치세력이 해결해야할 문제는 많았지만, 그중에서 첫 번째 난제(難題)는 간부부족문제였다. 특히 "국가를 통치하며 정권을 운영할 수 있는 인민층에서 나온 간부부

족"문제가 심각했다.[4] 북한정치세력은 이 같은 간부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간부양성기관을 창립했다. 1946년 6월까지 중앙에서 설립한 간부학교는 중앙정치간부학교, 보안간부학교 등 45개가 넘었다.[5]

이와 함께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도 조선인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것을 북한에서 수행할 중요과제 중 하나로 판단하였다. 소련군이 민족간부 양성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북한지역에 소련의 국가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기지를 구축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이다. 소련군 총정치국장 쉬킨(И. В. Шикин)은 1945년 12월 25일에 외무인민위원 로조프스키(А. Лозовский)와 몰로토프(В. М. Молотов)에게 보낸 보고에서 "소련에 대해 호의적이며 조선에서 우리의 정치적 입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간부를 선정·양성하는 문제에 좀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6]

북한의 정치세력은 해방 이후에 일제시기의 학교교육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12월 18일에 「북조선학교교육체계에 관한 규정」을 채택해서 학교교육체계를 보통교육, 기술교육, 고등교육으로 구분하였다. 보통교육은 인민학교(5년제), 초급중학교(3년제-인민학교 졸업자), 고급중학교(3년제-초급중학교 졸업자)로 재편되었고, 기술교육은 초급기술학교(3년제-인민학교 졸업자)와 중등전문학교(3·4년제-초급중학교 졸업자)로 구성되었다. 고등교육은 교원대학(2년제-고급중학교·사범전문학교 졸업자)과 대학(4·5년제-고급중학교·사범전문학교 졸업자)으로 재편되었다.[7] 이 중에서 북한정치세력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교육은 간부와 지식인을 양성하는 고등교육이었다.

---

4) 조선인민군 528군부대, 『〈학습재료〉 당건설』 제3부, 조선인민군 528군부대, 1950.3, 6-7면 (NARA, RG 242, SA 2009, Box 1, Item 136).

5) 金日成, 「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委員會 結成에 對한 報告」(1946.1), 北朝鮮勞動黨中央本部 宣傳煽動部, 『金日成將軍重要論文集: 民主朝鮮自主獨立의 길』, 勞動出版社, 1947, 21면(NARA, RG 242, SA 2009, Box 1, Item 166).

6) 쉬킨, 「외무부위원 로조프스키 동지, 몰로토프 동지에게 보낸 북조선 정세보고서 사본」(1945.12.25),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한울, 2008, 127-128면, 135-136면.

7) 북조선인민위원회, 「北朝鮮學校教育體系에 關한 規程 및 그 實施에 關한 措置에 對한 決定書」(1946.12.18),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987, 670-671면.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해방 이후 북한지역에 최초로 신설된 대학은 1945년 10월 1일에 청진시에 설립된 관북대학(關北大學)이다. 이 대학은 북한의 행정기관이 설립한 학교가 아니라, 일제시기에 청진시에서 외과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성주영(成周英)이 해방 직후 청진지역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다. 관북대학은 다른 학과 없이 의학원만 개설되어 있다가, 1946년 8월 21일에 청진의학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8]

북한정치세력이 고등교육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 시기는 1946년 7월 초였다. 이들은 7월 7-8일에 총 4개 종류의 고등교육기관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첫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7월 7일에 중등학교 교원을 급속히 양성하기 위해 1946년 신학년도 초에 2년제 교원대학(사범전문)을 평양시와 청진시에 각각 1개씩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교육국(教育局)에 각 중등학교의 우수한 교원을 선발해서 교원대학에 필요한 교수를 전원 보충하고, 신학년도 개학 이전에 교원대학의 교과목과 강령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9] 교원대학의 학과구성과 학생모집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1〉 교원대학(사범전문학교)의 학과구성과 학생모집계획(1946.7.7)[10]

| 과별 | 학생모집계획 | | | | |
|---|---|---|---|---|---|
| | 평양교원대학 | | | 청진교원대학 | 총계 |
| | 1학년 | 2학년 | 계 | 1학년 | |
| 數物科 | 40명 | 40명 | 80명 | 80명 | 160명 |
| 人民歷史科 | 40명 | 40명 | 80명 | 80명 | 160명 |
| 國語文科 | 80명 | 40명 | 120명 | 80명 | 200명 |
| 化學科 | 40명 | 40명 | 80명 | 40명 | 120명 |
| 博物科 | 40명 | 40명 | 80명 | 80명 | 160명 |
| 地理科 | 40명 | 40명 | 80명 | 40명 | 120명 |
| 外國語科 | 80명 | | 80명 | | 80명 |
| 합계 | 360명 | 240명 | 600명 | 400명 | 1,000명 |

8) 성주영, 「자서전(청진중앙병원장)」, 청진의학대학, 『청진의학대학 리력서』, 청진의학대학, 1949 (NARA, RG 242, SA 2005, Box 8, Item 31).

9)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教員大學(師範專門) 設立에 關한 件」(1946.7.7),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987, 662-663면. 해방 이후 북한 학교의 신학년도 개학일은 9월 1일이었다.

10)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教員大學(師範專門) 設立에 關한 件」(1946.7.7),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987, 662-663면.

교원대학은 각각 7개 학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 정원은 총 1,000명이었다. 역사교육과 관련해서는 2개 교원대학에 모두 인민역사과(人民歷史科)가 설치되었다. 인민역사과라는 학과명이 붙여진 것은 교원대학이 "인민교육"의 중심기관인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함께 한 과에서 세계사와 조선사를 동시에 가르쳤기 때문에 이 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민역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민역사과는 정원이 160명으로 국어문과에 비해 40명이 적지만, 수물과・박물과와 함께 교원대학의 주요학과 중 하나였다.

둘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교원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다음 날인 7월 8일에 중등 전문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4년제 "전문학교(중등기술전문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문학교의 학생은 각종 실업학교 1・2학년을 수료하는 학생을 각각 전문학교 1・2학년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충당하고, 학교는 9월 1일에 설립할 계획이었다. 전문학교의 교과목과 강령은 임시인민위원회 교육국에서 작성했고, 교원은 산업국・농림국・상업국・체신국・보건국・교통국이 교육국과 협력해서 선발・채용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다른 부문보다 특별히 중등기술전문학교를 설립한 이유는 일제시기에 조선인 기술자가 거의 양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제가 조선인을 위해 설립한 공업학교・농업학교・상업학교・실업학교에서는 초보적인 과학지식과 입문적인 기술만 교육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정치세력은 조선인 기술자 양성문제를 "제일 몬저 수행하여야 할 근본과업의 하나"라고 판단하였다.[11]

셋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7월 8일에 "고등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북조선종합대학"을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종합대학은 9월 1일 신학기에 평양시에 설립될 예정이었고, 그 명칭은 "김일성대학(金日成大學)"으로 명명되었다. 또한 평양의학전문학교와 평양공업전문학교를 각각 대학으로 승격시켜 북조선종합대학에 편입시켰다. 학생은 노동자・농민의 자녀를 중심으로 200명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대학에는 중등학교를 미필한 자를 위해 3년제 예비

11)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專門學校(中等技術專門學校) 設立에 關한 件」(1946.7.8),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987, 664면.

과(豫備科)가 설치되었다. 대학 총장 등 교원의 선발과 각 학과・학년의 교육 강령・교육계획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교육국에서 담당하였다.[12]

넷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7월 8일에 "고등의학(醫學)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의학교육기관을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하였다. 평양시와 함흥시에 있는 의학전문학교는 1946년 신학년도부터 의학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수업연한을 5년으로 늘렸다. 의학대학의 1학년 신입생 모집인원은 평양의과대학 80명, 함흥의과대학 160명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946년 신학년도부터 평양의과대학에 치과・의학과・약학과를 설치하고, 1학년 모집원은 각각 40명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평북인민위원회와 함북인민위원회는 교육국과 협의 없이 도에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학교를 설립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대해 임시인민위원회는 도 차원의 의과대학・의학전문학교 설립을 금지하고, 평북과 함북에 설치된 의학대학 예과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평양의과대학, 함흥의과대학, 다른 대학에서 공부하도록 조치하였다.[13] 그러나 평양의과대학은 독립적 단과대학으로 설립되지 못하고 1946년 9월 1일자로 김일성종합대학에 편입되었다.

북한의 행정당국이 1946년 7월에 각종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한 이유는 1946년도에 수립된 경제계획과 관련 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에 실시한 토지개혁과 8월로 예정된 주요산업 국유화 조치를 바탕으로 「1947년도 인민경제부흥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14] 이들은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인민경제계획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학교의 교원, 중등기술자, 고등기술자를 집중적으로 양성하려고 구상했다. 이에 따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7월 7일에 교원대학(사범전문학교-2년제), 7월 8일에 전문학교(중등기술전문학교-4년제)・김일성종합대학(4년+3년제)・의학대학(5년제)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1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北朝鮮綜合大學創立에 關한 件」(1946.7.8),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987, 682-683면.
13)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高等醫學技術者養成에 關한 件」(1946.7.8),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987, 590-591면.
14) 北朝鮮人民委員會 企劃局 編纂, 『1946年度 北朝鮮人民經濟統計集』, 北朝鮮人民委員會, 1946(NARA, RG 242, ATIS Document, No.201262).

것이다. 그 결과 1946년 12월까지 기술전문학교는 19개(학생수 5,058명)가 설립되었고, 사범전문학교는 9개(학생수 4,845명)가 설립되었으며, 대학은 4개(학생수 3,137명)가 설립되었다.[15]

북한의 대학생은 1947년까지 김일성종합대학 1,610명, 평양교원대학 600명, 청진교원대학 400명, 함흥의과대학 300명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16] 북한의 행정당국은 1947년 2학기에 2개의 전문학교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향후에 2개의 전문학교가 추가되면 북한의 대학생 전체인원은 6,2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17]

그런데 1946년 당시 북한에는 고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원, 교안(教案), 교육프로그램, 교과서, 교육설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북한의 행정당국은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련에 지원을 요청했다. 김일성(金日成)은 1946년 7월 26일에 북한주재 소련 민정국(民政局)에 김일성대학의 설립에 필요한 교수・강사, 교안・교육프로그램, 교과서・학술서적, 연구실・실험실 등 교육설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와 강사 42명을 요청했는데, 그중 6명이 세계역사과목 교수・강사였다.[18] 소련 정부는 북한의 고등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지원 요청을 수락하였다. 소련 고등교육성은 1946년 10월 시점에 북한에서 근무할 30명의 교수・강사와 김일성대학 총장 직속 고문을 선발하고 있었다.[19]

---

15) 北朝鮮人民委員會 企劃局 編纂, 앞의 책, 143면.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따르면, 기술전문학교는 기술자를 양성하는 중등기술교육학교(3・4년제)이며, 사범전문학교(2년제)는 교원대학(3년제)이 생기기 전에 인민학교 교원과 유치원 교양원을 양성한 학교다. 의학전문학교는 준의(准醫)급・간호원급 의료인을 양성하는 전문학교이며, 의학대학은 의사 등 의학부문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이다. 교원양성소는 3-4개월 동안 교육받는 단기 교육기관이다. 『조선말대사전』 1권, 사회과학출판사, 1992, 299면, 426면, 1628면; 『조선말대사전』 2권, 사회과학출판사, 1992, 1791면.

16) 장익환, 「解放後 四年間 共和國北半部 民主教育의 回顧와 展望: 高等教育部門(이하 民主教育의 回顧와 展望)」, 北朝鮮教育文化人職業同盟, 『人民教育』 第4卷 第7號(1949년 8・15기념호), 人民教育社, 1949. 8, 61-62면.

17) 북조선주재 민정국 교육과장, 「북조선 인민교육과 문화 상황 보고」, 1947(ЦАМО, ф. 172, оп. 614631, д. 27, лл. 11-12).

18) 「로마넨코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문(제4160/ш호)」, 1946.10(ЦАМО, ф. 172, оп. 614631, д. 27, лл. 41-45).

19) 「슈티코프가 로마넨코에게 보낸 전문」, 1946.10(ЦАМО, ф. 172, оп. 614631, д. 27, л. 27).

소련은 1947년과 1948년에도 북한의 고등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소련 정부는 1947년 12월 23일에 북한의 대학교에 소련 고문과 교육전문가를 파견하고, 학습용 교재, 학술서적, 교육설비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소련 고등교육성・대외무역성 등은 1947-1948학년도에 25만 루블(ruble) 상당의 실험용 기자재를 북한에 판매하였고, 고등교육기관용 교육프로그램과 정기간행물을 북한의 대학에 지속적으로 보냈다. 또한 소련의 강의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과학일꾼과 교원들을 대학교에 정기적으로 파견하였다.[20] 그리고 소련 고등교육성은 1948년 7-8월에 북한 대학교의 교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전공과목 교수 12명을 북한에 파견하였다. 그중 한 명은 일반역사학 교수였다.[21]

그런데 북한의 행정당국은 1948년 7월에 들어서 고등교육체계를 대폭 개편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7월 7일자로 「북조선 고등교육사업 개선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고, 김일성종합대학을 1개의 종합대학과 3개의 독립적 단과대학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공학부는 평양공업대학(7개 학부)으로, 의학부는 평양의과대학(3개 학부)으로, 농학부는 사리원농업대학(7개 학부)으로 각각 분리되었다. 이로써 김일성종합대학에는 력사문학부, 경제법학부, 물리수학부, 화학부, 생물학부 등 5개 학부만 남게 되었다. 또한 1949년에 원산교원대학이 신설되었고, 1949년 2월 9일에 내각지시 제6호로 로어학교(露語學校)가 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1949년 7월 5일에 내각지시 제164호로 미술학교와 음악학교도 국립대학으로 승격되었다.[22]

북한의 행정당국이 1948년 7월에 고등교육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이유도 경제계획과 연관되어 있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8년에 「1949-1950년 인민경제부흥발전 2개년계획」을 수립했다. 이 경제계획은 1947・1948년도 경제계획과 달리 처음으로 수립된 2년 동안의 장기적인 계획이었으며, 북한의 경제부문만을 대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 북한 지도부는 2개년계획을 수립할 때,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는 '국토완정(國土完整)' 이후에 전쟁으로 파괴된

20) 「소련 각료회의 결정(No.4109-1412c)」, 1947.12.23(ЦАМО, ф. 142, оп. 106601, д. 1, лл. 19-21).
21) 「소련 각료회의 지시(No.8378-pc)」, 1948.6.26(ЦАМО, ф. 142, оп. 106601, д. 1, лл. 6-7).
22) 장익환, 「民主教育의 回顧와 展望」, 北朝鮮教育文化人職業同盟, 앞의 책, 1949.8, 62-63면.

남한지역의 산업을 복구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었다.[23] 2개년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경제발전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화된 고등인력이 필요했으며, 이 때문에 단과대학을 특성화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한 것이다.

1945년부터 1949년까지 북한지역에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북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현황(1945-1949년)[24]

| 설립시기 | 대학명 | 정원・재학생수 | 연혁 |
|---|---|---|---|
| 1945.10.1 | 관북대학 | | 신설. 1946년 8월 21일 청진의학전문학교로 개편 |
| 1946.9.1 | 김일성종합대학 | 1,610명(1947년)<br>2,416명(1949년) | 신설. 평양의학전문학교와 평양공업전문학교를 흡수 |
| 1946.9.1 | 함흥의과대학 | 300명(1947년)<br>630명(1949년) | 함흥의학전문학교의 후신 |
| 1946.10.1 | 흥남공업대학 | 606명(1949년) | 신설 |
| 1946.10.1 | 해주교원대학 | 356명(1949년) | 신설 |
| 1946.10.20 | 평양교원대학 | 600명(1947년) | 1948년 9월 평양사범대학으로 개편 |
| 1946.10.20 | 청진교원대학 | 400명(1947년)<br>664명(1949년) | 신설 |
| 1947.9 | 정주교원대학 | | 신의주로 이전해 신의주교원대학으로 개편 |
| 1947.10.10 | 신의주교원대학 | 380명(1949년) | 정주교원대학의 후신 |
| 1948.9.1 | 청진의과대학 | 145명(1949년) | 청진의학전문학교의 후신 |
| 1948.9.1 | 평양의학대학 | 639명(1949년) | 김일성종합대학 의학부의 후신 |
| 1948.9.1 | 평양사범대학 | 610명(1949년) | 평양교원대학의 후신 |
| 1948.9.1 | 평양공업대학 | 1,476명(1949년) | 김일성종합대학 공학부의 후신 |
| 1948.9.1 | 사리원농업대학 | 809명(1949년) | 김일성종합대학 농학부의 후신. 후에 원산으로 이전 |
| 1949 | 원산농업대학 | | 사리원농업대학의 후신 |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의 인민경제부흥발전을 위한 1949년-1950년 2개년계획에 관한 법령」,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근로자』 제3호, 로동신문사, 1949.2.15, 18-19면(NARA, RG 242, SA 2005, Box 1, Item 34).

24)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1949년)』, 조선중앙통신사, 1949, 129면; 장익환, 「民主教育의 回顧와 展望」, 北朝鮮教育文化人職業同盟, 앞의 책, 1949.8, 61-64면; 성주영, 「리력서(중앙병원 원장)」, 청진의학대학, 『청진의학대학 리력서』, 청진의학대학, 1949(NARA, RG 242, SA 2005, Box 8, Item 31); 「민족간부들 속속배출」, 『로동신문』, 1949.12.28; 「선진적 학리로 무장한 인민교원양성에 치중(원산사범전문)」, 『로동신문』, 1947.9.19; 「원산교원대학 오는 9월 개교」, 『로동신문』, 1949.5.26.

| | | | |
|---|---|---|---|
| 1949.9 | 원산교원대학 | 280명(1949년) | 원산사범전문학교의 후신 |
| 1949.2.9 | 로어학교 | | 학교에서 대학으로 승격 |
| 1949.7.5 | 국립미술학교 | | 학교에서 대학으로 승격 |
| 1949.7.5 | 국립음악학교 | | 학교에서 대학으로 승격 |

북한의 고등교육기관은 1948년 9월 1일까지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해 11개 정규 주간대학이 설립되었다.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시기를 보면, 1946년 9-10월과 1948년 9월에 집중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46년 9-10월에는 종합대학·의과대학·공업대학·교원대학이 새로 만들어졌고, 1948년 9월에는 기존에 만들어진 종합대학의 공학부·농학부·의학부와 의학전문학교·교원대학이 새로운 이름과 체계로 개편되었다. 북한의 정치세력은 이 같은 대학을 통해 주로 경제전문가·공업전문가·화학전문가 등 산업인력과, 교원·의료인력·농업전문가·번역원·역사가를 양성하려고 구상했다.

또한 주간대학과 함께 특수한 고등교육기관도 부설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에 부속 통신사범대학부가 설치되었고, 평양사범대학에 부속 야간교원대학과 통신교원대학부, 청진교원대학과 신의주교원대학에 통신교원대학부, 평양공업대학과 흥남공업대학에 야간대학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특별히 고급과학 기술자를 재교육시키기 위해 평양공업대학에 2년제 산업간부학부가 부설되었다. 이처럼 각 분야별 대학과 학부가 설치된 결과, 1949년 9월 1일 당시 정규 주간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공업대학, 흥남공업대학, 원산농업대학, 평양의학대학, 청진의과대학, 함흥의과대학, 평양사범대학, 해주교원대학, 로어학교, 국립음악학교, 국립미술학교 등 15개로 확대되었고, 주간대학의 재적생과 신입생은 약 12,300명으로 증원되었다.[25]

북한 지도부는 1949-1950년의 2개년 경제계획을 수립하면서 고등교육체계를 확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1차 2개년 경제계획이 종료되는 1949년 말까지 대학생의 정원을 15,00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1949년 9월 1일에 원산교원대학이 신설되었으며, 1949년 말에 대학생수가 11,984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대학생 정원을 15,000명으로

25) 장익환, 「民主教育의 回顧와 展望」, 北朝鮮教育文化人職業同盟, 앞의 책, 1949.8, 63-64면.

증원하려던 계획은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중단되었다.[26]

## 3. 북한 역사교육체계의 구성과 내용

### 1) 역사과의 설치와 교과목 구성

북한의 정치세력은 일제가 역사교육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제국주의적 식민사관(植民史觀)을 주입시켰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역사교육정책에서 일제 잔재의 청산을 가장 중시하였다. 김일성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된 다음날인 1946년 2월 9일에 처음으로 전체적인 교육정책을 발표했는데, 새로운 교육정책의 핵심은 과거 일제교육의 노예화사상을 청산하고 민주주의적 정신을 교양하는 것이었다.[27] 이 같은 교육정책은 1947년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임시정부 수립문제가 결정적 국면에 들어선 이후에 더욱 강조되었다. 김일성은 1947년 6월 23일에 조선임시정부의 정강(政綱)을 천명한 연설에서 "림시정부는 반드시 학원의 자유와 모든 일제 잔재를 숙청하고 민주주의정신에 립각한 인민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피력하였다.[28]

즉 북한의 역사교육정책은 일제교육의 잔재 청산과 민주주의정신에 입각한 교육이었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 민주주의정신에 입각한 교육이란 소련에 대한 지식과 공산주의사상을 교육하는 것을 뜻했다.[29] 이 같은 역사교육정책은 마르크스주의(Marxism)와 연관되어 있다. 마르크스(Karl Marx)와 엥겔스(Friedrich Engels)는 교육이 사회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며, 교육을 지배계급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교육에 대한 사회적 영향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라고 규정했다.[30] 이처럼 북한의 역사교

---

26) 『조선교육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도쿄: 학우서방, 1961/1963, 176면.
27) 신효숙, 앞의 글, 1999, 167면.
28) 김일성, 「민주주의 림시정부수립을 앞두고 조선청년에게 고함」(1947.6.23),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1권, 국립인민출판사, 1949, 361-362면.
29) 신효숙, 앞의 글, 1998, 199면.
30) 칼. 맑쓰·프. 엥겔쓰, 『공산당선언』(100년 기념호), 모쓰크바: 외국문서적출판부, 1948, 70-71면.

육정책은 근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의 교육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북한의 역사교육정책은 1947년 1월에 채택된 「조선역사편찬회(朝鮮歷史編纂會)에 관한 결정서」에 공식적으로 표출되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해방 직후에 일제가 조선역사에 관해 남긴 잘못된 형식과 내용을 단기간에 청산했다고 평가하고, "조선민족의 사상"을 교육하는 "과학적인 조선민족의 역사"를 새로 편찬하려고 계획했다. 조선역사 편찬의 근본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조선역사편찬은 가장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사상에 의거하여 조선민족의 장구한 역사를 고대로부터 오늘까지 옳게 표현시키어야 한다. 특히 외국자본이 침입하던 때와 일본이 강제로 조선을 합병하여 자주독립을 잃게한 그 시기가 가장 조선민족의 역사에 있어서는 암흑시기라고 할 것이며,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위하여 싸운 많은 투사들의 영용한 해방운동과 또한 우리의 해방군 붉은군대의 조선에서 일제를 구축하고 민주주의과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진정하고도 적극적인 방조를 하여 주었음을 표현하여야 한다.[31]

이 결정서에 표명된 북한의 역사교육에 대한 인식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조선사의 장구한 역사성, 암흑기와 해방기라는 대조적 사관, 민족해방운동과 소련의 원조에 대한 강조다. 이 같은 역사교육에 대한 인식은 노동당의 역사인식과 동일한 맥락이었다. 노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Marxism-Leninism)에 근거해 일제의 통치 하에서는 조선의 사회적·정치적 발전이 정체되었으며, 반대로 소련군의 역량으로 조선이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면서 '인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제고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역사교육이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사상"에 의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상은 바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뜻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사회적 사상을 선진적인 것과 반동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오로지 선진적인 사상만이 사회발전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보았다.[32] 즉 북한의 정치

31)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朝鮮歷史編纂會에 關한 決定書」(1947.1.7),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987, 673-674면.

32)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강연과, 『사회발전에 대한 맑쓰 레-닌주의적 학설의 제기본문제』, 로동당출판사, 1948, 5-7면.

세력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학교교육과정에 역사교육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북한의 역사교육은 인민학교・초급중학교・고급중학교・중등기술전문학교・대학에서 모두 실시되었다. 인민학교에는 일반적으로 10개 과목이 개설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력사"과목이었다.[33]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에도 모두 "력사"과목이 개설되었으며, "력사과(歷史科)"를 졸업한 교원들이 가르쳤다. 가령, 함경남도 중화고급중학교와 양정고급중학교의 역사과목은 평양교원대학・중앙교육간부학교의 역사과를 졸업한 교무주임・교양주임이 담당했으며, 형산초급중학교와 재경초급중학교의 역사과목은 평양사범학교・평양농업학교・신의주사범학교의 역사과를 졸업한 교무주임・교양주임이 담당했다.[34] 자강도 희천중학교에서는 교양주임이 역사과목과 지리과목을 함께 가르쳤으며,[35] 황해도 송림여자중학교에서는 일반 교원이 역사과목을 담당하였다.[36] 인민학교나 초급중학교와 달리 고급중학교와 사범전문학교(교원대학)에는 조선역사과목과 세계역사과목이 함께 개설되었다.[37]

인민학교부터 고급중학교에 이르는 북한의 학교교육체계는 기본적으로 학과가 아니라 학년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역사과목은 모든 학년에서 필수적인 기본과목의 하나로 교육되었다. 그러나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은 학년이 아니라 학부나 학과를 기준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역사과목은 전문적인 학사(學士)과정에서 주제와 시대별로

33) 한계인민학교장, 「졸업증서: 이태호」(1949.7.15), 한계인민학교, 『상장・수업증서・졸업증서(이태호)』, 한계인민학교, 1949(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34) 김병수(함경북도인민위원회 교육부장), 「각급학교 간부교원명단 제출에 대하여」(1950.3.17), 교육성 간부부, 『보고原案철(1949년)』, 교육성, 1950(NARA, RG 242, SA 2012, Box 8, Item 67).
35) 정송남, 「문의서: 희천중학교 교양주임 김상률(력사・지리)」(1949.10.25), 자강도인민위원회, 『간부리력서(자강・회천 초중간부)』, 자강도인민위원회, 1949.10(NARA, RG 242, SA 2005, Box 8, Item 33).
36) 원태봉, 「문의서: 김준성(력사담임)」, 송림시인민위원회, 『문의서・간부리력서(송림시)』, 송림시인민위원회, 1949.10(NARA, RG 242, SA 2005, Box 8, Item 33).
37) 선천고중위원회, 「각종학업성적분석통계」(1950.6.5);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선천사범전문학교위원회, 「성적통계(1949학년도 학년말)」(1950.6.9),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선천고급중학교위원회, 『졸업생통계표』, 선천고급중학교위원회, 1950(NARA, RG 242, SA 2005, Box 4, Item 32).

세분화되어 교육되었다. 1949년 당시 북한에 설립된 고등교육기관과 그 학부・학과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3〉 1949년 당시 북한의 고등교육기관과 학부・학과[38]

| 대학명 | 설립시기 | 총장・학장 | 학부・학과 | 재학생수 |
|---|---|---|---|---|
| 김일성대학 | 1946.9.1 | 허헌(許憲) | 경제법학, 물리수학, 역사문학, 화학, 생물학 | 2,416명 |
| 평양공업대학 | 1948.9.1 | 림극제(林克濟) | 광산, 지질, 섬유, 건설, 금속, 전기, 기계, 운수 | 1,476명 |
| 흥남공업대학 | 1946.10.1 | 신건희(申健熙) | 전기, 화학, 유기금속, 기계, 재료화학 | 606명 |
| 평양의학대학 | 1948.9.1 | 정두현(鄭斗鉉) | 의학, 위생학, 약학 | 639명 |
| 함흥의과대학 | 1946.9.1 | 최명학(崔明鶴) | 의학 | 630명 |
| 청진의과대학 | 1948.9.1 | 양진홍(梁珍鴻) | 의학 | 145명 |
| 신의주교원대학 | 1947.10.10 | 허빈(許彬) | 역사, 국문학, 화학, 수물리학, 박물, 체육, 로어 | 380명 |
| 청진교원대학 | 1946.10.20 | 박두환(朴斗煥) | 역사, 국문학, 수물리, 박물, 화학, 지리, 로어 | 664명 |
| 평양사범대학 | 1948.9.1 | 허익(許翼) | 역사, 국문학, 수물리, 지리, 로어 | 610명 |
| 해주교원대학 | 1946.10.1 | 김경홍(金敬弘) | 역사, 국문학, 수물리, 박물, 화학, 지리, 로어 | 356명 |
| 사리원농업대학 | 1948.9.1 | 리순근(李舜根) | 농업, 잠업, 수산, 임산, 수의, 축산, 농업토목, 농업경영 | 809명 |
| 합계 | | | | 8,731명 |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독립적으로 역사과가 설치된 학교는 신의주교원대학, 청진교원대학, 평양사범대학, 해주교원대학이다. 교원대학은 설립 당시부터 역사과가 독립적으로 설치되었다. 교원대학 역사과의 학생수와 학과목은 현재까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원산교원대학의 학생모집요강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원산교원대학 통신교원대학부는 1950년도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모집학과는 역사과, 국문과, 로어과, 수물과, 생물과였고, 역사과 모집인원은 30명이었다. 입학시험의 과목은 "로어, 조선어, 조선사, 세계사(근세사)"였다.[39]

청진교원대학에는 인민역사과가 설치되었고, 인민역사과에는 서양사과목이 개설되었다. 인민역사과 학과장은 황철산(黃哲山)이 맡았고, 서양사과목

38) 조선중앙통신사 편, 앞의 책, 129면.
39) 원산교원대학 통신교원대학부, 『원산통신교원대학 학생모집 요강』, 원산교원대학, 1950.5(NARA, RG 242, SA 2010, Box 3, Item 147).

담당 교원은 1947년 10월에 함북 경성중학교 교무주임이던 권흥석이 임명되었다.[40] 평양사범대학에는 력사지리학부 내에 인민역사과가 설치되었으며, 인민역사과에는 세계사과목이 개설되었다. 인민역사과 학생들은 역사과목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레닌주의도 함께 교육받았다.[41] 두 학교의 사례를 보면, 교원대학에 설치된 인민역사과에는 공통적으로 조선사과목과 세계사(서양사) 과목이 개설되었다.

한편 교원대학과 달리 김일성종합대학에는 설립 당시부터 역사과와 문학과가 통합되어 력사문학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조선어학・조선문학・조선지리와 함께 조선역사가 주요 교육과목으로 설정되었다.[42] 그런데 김일성대학 력사문학부는 1949년 9월 1일부터 력사학부, 조선어문학부, 지리학부, 교육학부, 외국어문학부 등 5개 학부로 분리되었다. 력사학부의 구성과 학생수를 보면, 조선사학과 108명, 세계사학과 125명, 철학과 97명, 총원 330명이었다. 력사학부는 당시 김일성대학의 10개 학부 중에서 정원이 가장 많았다. 력사학부에 개설된 강좌와 담당 교원수를 보면, 조선사학강좌 6명, 세계사학강좌 8명, 철학강좌 6명, 총원 20명이었다.[43]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는 아직 독립적인 학과로 분화되지 않은 철학과를 제외하면 조선사와 세계사의 2개 학문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하였다. 개설된 강좌를 보면, 이 2개 분야 외에 맑스레닌주의기본강좌가 개설되었는데, 이 강좌는 다른 학부나 학과에서도 필수 강좌였다. 김일성대학의 각 학과에는 학과공통과목으로 10시간의 맑스레닌주의기본강좌와 18시간의 로어강좌가 개설되어 있었다. 력사학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국제외교사 6시간, 세계고대사 14시간, 조선고대사 14시간, 동양사 8시간이 각각 교육되었다.[44]

---

40) 朴斗煥(淸津敎員大學長), 「敎員人事 건의에 관한 건」(1947.10.14); 咸鏡北道人民委員會 敎育部長, 「敎員大學敎職員 任命內申에 關한 件」(1946.12.7), 淸津敎員大學, 『淸津敎員大 履歷書綴』, 淸津敎員大學, 1947 (NARA, RG 242, SA 2006, Box 12, Item 31).

41) 진두진(평양교원대학 인민역사과), 「간부리력서」・「자서전」(1949.4.21), 리학복(력사지리학부장), 『평양사범대학 간부리력서・자서전・평정서(33인분)』, 평양사범대학, 1949.5(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42)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10년사』, 김일성종합대학, 1956, 29면.

43) 같은 책, 42-43면.

또한 김일성대학은 력사학부가 아닌 다른 학부에서도 조선역사를 교육하였다. 경제법학부에는 조선사과목과 세계사과목이 개설되었다. 력사문학부 교수 김현수가 세계사를 가르쳤고, 력사문학부 교수 김석형이 조선사를 가르쳤다. 또한 예비과에도 조선사와 세계사과목이 개설되었고, 김현수가 세계사를 가르쳤다. 이상의 학과를 제외하고, 공학부, 농학부, 의학부, 물리수학부, 화학부에는 역사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45]

이상에서 살펴본 고등교육기관의 역사교육체계를 종합해보면, 고등교육기관은 공통적으로 조선사와 세계사(서양사)를 교육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뿐만 아니라 1년 미만의 단기 교육과정을 통해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에도 역사과가 설치되었다. 대표적으로 중앙교육간부학교에 역사과가 설치되었다. 중앙교육간부학교는 고급중학교 교원이나 지도적 간부를 재교육해서 고등교원으로 양성하는 기관이었고, 평양시 상수리에 설립되었다. 함남 혜산고급중학교 교원이던 김우준은 1948년 1월에 중앙교육간부학교 역사과에 입학해 7월에 수료하였다. 그는 수료와 동시에 평양여자사범전문학교 교원으로 임명되었다. 함북 청진국립애육원 원장이던 김일영은 1948년 5월에 중앙교육간부학교 역사과에 입학해 10월에 수료하였다. 그는 12월에 평양여자사범전문학교 교원으로 임명되었다.[46]

또한 중등교원양성소에도 인민역사과나 지리역사과가 설치되었다. 중등교원양성소는 인민학교 교원이나 초급 행정간부를 재교육해서 중등교원으로 양성하는 기관이었으며, 각 도마다 설치되었다. 함흥중등교원양성소에는 인민역사과가 설치되었다. 인민역사과의 학과목은 서양사, 동양사, 국사, 사회과학(1), 사회과학(2)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함남 북청군 안각인민학교 교원 이연경과 함흥시청 총무과 시정계 서기 박원선은 각각 1947년 7월과 6

44) 趙益俊, 「冬季登校授業을 總結하면서 自作業學習을 어떻게 提高시킬것이냐」, 北朝鮮教育文化人職業同盟, 『人民教育』 第4卷 第2號(1949년 2・3월호), 人民教育社, 1949.3, 98면.

45) 金科奉(김일성대학 총장), 「學科擔當教員表 提出의 件」(1947.3.21), 北朝人委 教育局, 『金日成大學發令件』, 北朝鮮人民委員會 教育局, 1947(NARA, RG 242, SA 2006, Box 12, Item 32.1).

46) 김우순, 「간부리력서」(1949.11.19); 김일영, 「간부리력서」(1949.11), 평양여자사범전문학교, 『간부 이력서』, 평양여자사범전문학교, 1950(NARA, RG 242, SA 2005, Box 8, Item 35).

월에 함흥중등교원양성소에 입학했다. 이들은 86일간 재학했으며, 각 과목에서 4-5점을 취득하고 수료하였다.[47]

강원중등교원양성소에는 인민과와 역사과가 분리되어 설치되었다. 역사과의 학과목은 서양사, 국사, 사회과학, 국문해석・국문법・작문의 4과목이었다. 철원군 동송인민학교 교원 함승환은 전 과목에서 4점을 받고 수료하였다.[48] 평남중등교원양성소에는 지리역사과가 설치되었다. 평남 맹산인민학교 교원이던 변종근은 1947년 11월 1일에 평남중등교원양성소 지리역사과에 입학하여 1948년 3월 1일에 수료하였다. 그는 북조선인민위원회 교육국장으로부터 "중등교원자격인정서"를 발급받아 5월 1일에 평양제5중학교 교원으로 배치되었다.[49]

### 2) 교과서의 편찬과 역사교과서

북한의 교육당국은 학교교육체계에서 무엇보다 교과서를 가장 중시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 교육국은 학교교육에서 교과서가 갖는 의미에 대해 "교과서는 학교교육의 생명이며 무기이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교육국은 국가의 흥망이 '인민교육'에 있으며, 진정한 '인민교육'은 민주주의노선에 입각한 우수한 교과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교과서 편찬사업을 교육계에서 가장 중대한 국가적 사업이라고 규정하였다. 북한의 교육당국은 1946년 2월에 창립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교육국시기부터 교과서 편찬사업에 착수해서 7-8개월 만에 50여 종의 교과서를 발행하였다.[50]

북한의 교과서 편찬사업은 국가건설과정에서 크게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

47) 趙升權(科主任), 「人民歷史科 學籍簿」, 咸興中等教員養成所, 『1947年度 第一會 修了生 學籍簿』, 咸興中等教員養成所, 1947(NARA, RG 242, SA 2006, Box 12, Item 24).

48) 江原中等教員養成所, 『1947年度 第一會 修了生 學籍簿』, 江原中等教員養成所, 1947(NARA, RG 242, SA 2006, Box 12, Item 24).

49) 변종근, 「리력서」(1949.4.22); 북조선인민위원회 교육국장, 「中等教員資格認定書(邊宗瑾)」(1948.2.28), 평양여자사범전문학교, 『간부 이력서』, 평양여자사범전문학교, 1950(NARA, RG 242, SA 2005, Box 8, Item 35).

50) 신원우(교육국 편찬부장), 「제일차 교과서 편찬을 마치고」, 北朝鮮教育文化人職業同盟, 『人民教育』 第3輯, 人民教育社, 1947.4, 29면.

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8월 31일자로 제1차 교과서 편찬사업을 완료하였다. 그 후 바로 제2차 교과서 편찬사업에 착수해 1946년 12월 말까지 편찬사업을 완수하였다.[51] 제1차・제2차 교과서 편찬사업 당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규정한 편찬사업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일본 제국주의 잔재요소를 철저히 숙청하기 위한 교재를 많이 실을 것.
② 정치, 사회, 경제와 긴밀한 연락을 취한 교재를 선택할 것.
③ 조선민족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근로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주며 산업 발전을 도모할수 있는 기초를 배양하기 위한 교재를 실을 것.
④ 일제 강점기의 비과학적 신비(神祕)교육 내용을 일소(一掃)하고 과학적 세계관과 과학적 처리력(處理力)을 양성하기 위한 교재를 실을 것.
⑤ 고대(古代) 조선 민족문화의 정수(精粹)를 부활시키는 동시에 선진제국의 우수한 문화를 흡수하기 위하여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의 기초를 양성하기 위한 교재를 선택할 것.[5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교과서 편찬사업에서 교과서 내용의 핵심으로 설정한 원칙은 일제 잔재의 청산, 정치・사회・경제와 연계성, 노동에 대한 재인식, 과학적 세계관의 함양, 민족문화의 창조다. 일제 잔재의 청산 원칙은 김일성이 1946년 3월 23일에 발표한 “조선임시정부수립의 기본정강” 제1조를 구현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었다. 정강의 제1조는 바로 “조선의 정치・경제생활에서 과거일본통치의 일절 잔재를 철저히 숙청할 것”이었다.[53] 이 정강은 향후에 수립될 국가의 근본적인 정치강령이었으므로 교육부문에서도 첫 번째 원칙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리고 교육국은 다른 과목 보다 인민・역사・국어과목을 중심으로 정치・사회・경제부문과 연계된 교재를 강조했는데, 이것은 일제시기 황민화(皇民化)교육의 중심과목이었던 수신(修身)・역사・국어(일본어)의 영향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교육국은 노동에 대한 재인식과 과학

51) 같은 글, 30면.
52) 같은 글, 30-31면.
53)「해방 이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 국사편찬위원회 편,『북한관계사료집』7권, 국사편찬위원회, 1989, 602면.

적 세계관을 배양할 수 있는 교재를 강조했는데, 이것은 국가건설에 필요한 '근로자(勤勞者)'를 양성하려는 의도였다. 한편 교육국은 선진국의 우수한 문화를 도입해 민족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교재를 중시했는데, 여기서 선진국으로 설정된 국가는 주로 소련이었다. 예를 들어, 새 교과서의 「중등국어」에는 소련의 문학작품이 대거 수록되었다.[54]

제3차 교과서 편찬사업은 1947년 초부터 추진되었다. 북조선인민위원회 교육국은 1947년 초부터 "민주주의적 내용을 가진 충실한 교과서"를 편찬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국은 1947년 8월 20일까지 인민학교 7과목 25종, 초급중학교 20과목 41종, 고급중학교 15과목 42종, 성인학교 3과목 3종, 한글학교 2과목 2종, 합계 47과목 113종의 교과서를 새로 편찬해 출판하였다. 또한 사범전문학교의 교과서 5종과 대학의 교과서 7종도 새로 출판하였다. 이 중에서 조선역사 교과서는 인민학교용 2권, 초급중학교용 2권, 성인학교용 1권이 각각 새로 출판되었다. 1947년도 2학기 교과서의 총 출판부수는 8,050,000부에 달했다. 그리고 북한의 모든 학생들은 1947년 9월 신학기부터 제3차 교과서로 교육받았다.[55]

교과서 편찬사업의 집필자는 주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와 교원이었다.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용 조선역사·조선문법·조선문학·조선지리 등 조선 관련 교과서는 김일성대학에서 해당 강좌를 담당하고 있던 교수와 교원들이 집필하였다. 또한 김일성대학 교수와 교원들은 수학·물리·화학·식물학·동물학 등의 교과서를 새로 집필하거나 번역했으며, 세계사·세계지리와 다른 교과서도 번역하였다.[56]

북한의 교육당국은 3차에 걸친 교과서 편찬사업에서 무엇보다 일제 잔재의 청산과 인민·역사·국어과목을 가장 중시하였다. 또한 국가건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에 대한 인식과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인재와, 소련의 문화를 도입해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였

54) 신원우(교육국 편찬부장), 앞의 글, 30-31면.
55) 「新教科書 八百五萬部 教材編纂事業의 成果」(1947.9),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27권, 국사편찬위원회, 1997, 108-109면.
56) 김일성종합대학, 앞의 책, 58면.

다. 교육국은 이를 위해 교과서의 저본(底本)도 학과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설정하였다. 조선역사・조선지리 등 조선 관련 교과서는 김일성대학 교수・교원들이 새로 집필했으며, 세계사・세계지리 등 국제 관련 교과서는 소련의 교과서를 번역해서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고등교육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재와 내용으로 역사교육을 진행했을까?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현재까지 교재와 교수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학교는 김일성종합대학이다. 김일성대학 교원들은 1949년도부터 담당과목의 강의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소련의 교과서・참고서・과학서적을 참고하도록 지시받았다. 이 뿐만 아니라 소련은 직접 학자들을 선발해 김일성대학에 고문과 교수로 배치하였다. 가령, "챠스뚜힌"은 1948년 8월부터 1950년 8월까지 김일성대학 력사학부 고문 겸 세계사 강좌 고문으로 배치되어 력사학부의 행정사업과 강좌사업을 지도하였다. 그는 교원과 학생들에게 직접 최근세사를 강의했으며, "력사학까비넷트"(кабинет, 연구실)를 중심으로 자문을 진행했다. 그가 강의한 최근세사는 1949년 10월에 김일성대학 편집부에서 2분책으로 출판되었다.[57]

김일성대학의 세계사 교과서는 1947년 초부터 1948년까지 소련 대학의 교과서를 번역해서 사용하였다. 김일성대학의 60여 학과목의 교수요강도 모두 소련 대학의 교수요강을 번역하거나 번안하여 사용했다. 그러나 조선 관련 학과목은 1948년까지 교수요강이 완성되지 못했다. 조선사와 조선인민경제사를 비롯한 조선역사 학과목의 교수요강은 1950년도에 비로소 교육성(教育省)에서 승인받았다. 또한 김일성대학은 1949년부터 1개월에 2회씩 대학 전체 차원에서 소련의 과학 성과에 대한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는데, 이 연구발표회는 조선역사 관련 과목에서도 진행되었다. 1949년 12월에는 "조선민족해방투쟁사"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1950년 2월에는 "조선노예제도"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58]

---

57) 같은 책, 46면, 61면; 이. 느. 차스뚜힌 著, 金日成綜合大學世界史講座 譯, 『最近世史』 第1分冊, 金日成綜合大學編輯部, 1949.10.15.

58) 김일성종합대학, 앞의 책, 46-47면. 북한의 역사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된 분야는 조선사 교육이었다. 역사교육의 원칙과 이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선사 교과서에 대한 분석

## 4. 북한 역사교육의 원칙과 이념

해방 이후 북한의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교육내용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근대적인 교육학과 교수법을 도입하였다. 교육학은 북한에서 "교수학(教授學)"이라고 명명되었는데, 그 정의는 "교육과 교수의 이론인 동시에 학생들의 정신적 교양의 이론"이었다. 교수법의 정의는 "학과목 교수학"이었다.[59] 그렇다면 국가건설기에 북한의 교육자들이 학교교육을 위해 도입한 교육이론은 어떤 이론이었을까?

북조선인민위원회 교육국은 1947년 10월부터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련의 교육이론을 본격적으로 번역해 출판하였다. 교육국은 11월에 교육학 제1집으로 『교양론(教養論)』(상권)을 출판하였고, 이후 『교양론』(중·하권)을 각각 출판하였다. 다음으로 1948년 8월부터 교육학 제2집으로 『교수론(教授論)』(상·하권)을 출판했으며, 1949년 10월에는 교육학 제3집으로 『학교론(學校論)』을 출판하였다. 교육국은 소련의 교육이론을 번역하면서 새로운 교육술어(教育術語)를 만드는 한편, 기존에 써오던 교육용어를 변경하였다. 이 교육학 시리즈는 태성수(太成洙)가 편집·작성하였고, 남일(南日)과 김일성대학 교수 이남산(李南山)이 감수했으며, 교육국에서 정식으로 인가받았다. 출판부수를 보면, 『학교론』의 경우에 30,000부가 출판되었다.[60]

태성수는 1908년생으로 소련에서 문인으로 활동하다가 1945년 8-9월에 입북했으며, 1946년 10월부터 1947년 9월까지 북조선로동당 이론잡지 『근로자』의 책임주필을 맡았다. 1947년 12월에는 김일성대학의 부총장이었다. 남일은 1913년생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활

---

을 통해 일제 교육이념의 청산 방식과 새로운 사상에 입각한 조선사의 교육이념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 시기 역사교과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특징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 주제는 지면의 한계로 다음 논문에서 다룰 예정이다.

59) 太成洙 編作, 『〈教育學 第二輯〉 教授論』(上), 勞動新聞社, 1948.8.30, 3면(NARA, RG 242, SA 2009, Box 4, Item 95).

60) 太成洙 編作, 「序言」, 『〈教育學 第一輯〉 教養論』(上), 勞動新聞社, 1947.11.30(NARA, RG 242, SA 2012, Box 4, Item 54); 太成洙 編作, 앞의 책, 1948.8.30; 太成洙 編作, 『〈教育學 第三輯〉 學校論』, 勞動新聞社, 1949.10.30(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동했으며, 1946년 여름에 입북해서 1947-1948년에 북조선인민위원회 교육국 부국장을 맡았다.[61] 이남산은 국내 출신이다. 교육학 시리즈의 편집자 겸 집필자 태성수는 소련의 문학을 잘 알고,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의 이론에 정통하며, 북한 대학의 부총장이었다. 감수자 남일은 소련의 교육부문을 잘 알고, 북한 정권기관의 교육부문 부책임자였다.

따라서 북한의 교육이론은 소련의 교육이론을 모델로 만들어졌으며, 이를 도입한 사람들은 주로 소련의 교육・문학부문에서 활동하다가 입북해서 북한의 교육계에 종사한 고려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교육자들은 소련의 교육이론 중에서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해 사회주의 교육학을 정립한 콘스탄틴 우신스키(Константин Д. Ушинский)와 안톤 마카렌코(Антон С. Макаренко)의 교육이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62] 우신스키는 노동을 신체・정신・교육의 기본요건이라고 보면서 노동과 교육을 결합한 교육사상을 정립하였고, 마카렌코는 노동과 집단주의를 긍정하는 소비에트적 교육의 이론과 방법을 고안하였다.[63]

북한의 교육자들은 소련의 사회주의 교육이론을 받아들여 학생들의 지식이나 세계관이 교육을 통해 습득되고 형성되며, 그들의 사상이나 사회적 활동능력도 교육을 통해 생성된다고 인식했다. 그리고 교육사업이 교양사업의 기초라고 정의하였다.[64] 북한에서 출판된 『교양론』에 따르면, 교육은 과학적 지식・능력・관습을 가르침으로서 학생들의 지각력(知覺力)을 발전시키고 과학적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교양은 습득한 과학적 지식에 기초해 민주주의적 신념을 배양하며, 민주주의적 사회에 필요한 단체적 가치를 양성하

61) 우동현, 「1945-1950년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과 성격」,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6, 32-33면, 48면; 太成洙(북조선김일성대학 부총장), 「中等教員養成所 修了生에 關한 件」(1947.12.27), 北朝人委 教育局, 『金日成大學發令件』, 北朝鮮人民委員會 教育局, 1947(NARA, RG 242, SA 2006, Box 12, Item 32.1); 國土統一院, 『北傀人物』, 國土統一院, 1971, 174면.

62) 太成洙, 「로씨아 教育學者 콘쓰딴찐 지밋드리윗치 우신쓰끼의 教育思想과 教育活動」, 北朝鮮教育文化人職業同盟, 『人民教育』 第3卷 第2號(1948년 2(8)호), 人民教育社, 1948.2, 65-75면; 아. 쓰. 마까렌꼬 著, 朴曉鐘 譯, 「序文」, 『教育論文集』, 人民教育社, 1950.1.

63) 소동호, 『교육사상사: 서양편』, 교육과학사, 2004, 278-282면; 아. 쓰. 마까렌꼬, 앞의 책, 1면.

64) 太成洙 編作, 앞의 책, 1948.8.30, 1-2면.

는 것이다. 즉 북한의 교육자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신 국가의 건설에 필요한 새로운 "근로자"를 만들려고 계획하였다.[65] 따라서 학교교육은 단순히 특정한 지식이나 세계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학생들의 사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한편 북한의 교육자들은 교육방법에서도 소련의 교수법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였다. 이들이 교육과정에서 중심에 둔 것은 과학적 지식의 습득, 봉건적·일본제국주의적 잔재의 숙청, 애국심의 배양, 과학적 세계관의 파악 등을 달성할 수 있는 교재였다. 이들은 과학적 사상과 선진적 기술을 소유한 인재를 급속히 양성하기 위해 1934년에 개혁된 소련의 교수법을 채택하였다. 소련은 이때부터 전문교육과 보통교육을 병행시켜 학급제(學級制)와 시험제(試驗制)를 실시했으며, 실험과 실습을 중시하는 교수법을 시행하였다. 북한의 교육자들은 이 같은 소련의 교수법을 받아들여 교육현장에서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 "산 교육"에 주력하였다.[66]

또한 북한의 교육당국은 교원들에게 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의 동시성과 특수성, 교육자의 모범성과 일원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교육시간에 먼저 교재를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를 현실문제와 결합시키는 방식을 고립적 고양방식이라고 비판하였다. 그 대신 교재를 교육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즉시 현실문제를 제기해 그들에게 투쟁심과 경각성을 제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당국은 교육과정에서 시사해설식 교육방식을 피하고 "학리적(學理的) 토대" 위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모범이 될 것, 선진적인 사상으로 무장해 행동과 교수·교양을 일원화(一元化)할 것을 요구하였다.[67]

북한의 교육자와 교육당국은 교수법에서 과학과 실제활동의 관련성, 이론과 실제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이를 통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취급했는데, 이

65) 太成洙 編作, 앞의 책, 1947.11.30, 5-6면.
66) 楊秉祉, 「各科教授法(1)—人民科」, 北朝鮮教育文化人職業同盟, 『人民教育』 第3卷 第2號(1948년 2(8)호), 人民教育社, 1948.3, 85면.
67) 金璃淳, 「歷史科를 中心으로의 愛國主義思想教養」, 北朝鮮教育文化人職業同盟, 『人民教育』 第4卷 第7號(1949년 8·15기념호), 人民教育社, 1949.8, 135-136면.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세계관인 사적 유물론(史的 唯物論, Historical Materialism)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68] 즉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교육이론의 사상적 토대로 설정한 상태에서 소련의 교육이론과 교육방법을 도입해 학생들을 교육한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교육당국은 학교교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에 따라 역사교육을 실시했을까? 이들은 1934년에 개혁된 소련의 학급제와 시험제를 채택했는데, 교육성이 실시한 "실력시험"을 통해 역사교육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각 교육성은 1948년 12월에 대학을 제외하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력시험을 실시하였다. 역사과목은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에서만 시험을 실시했는데,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조금 높은 편이었다. 2개 학교에서 역사과목의 평균 우등생률은 24.5%, 중등생률은 46%, 낙후생률은 29.5%를 기록했다.[69]

학생들의 답안을 보면, 교육성에서 출제한 역사과목의 시험문제를 알 수 있다. 초급중학교 학생들은 고대사과목을 시험을 쳤고,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보불전쟁(普佛戰爭, Franco-Prussian War)의 원인, 러시아의 유혈주일(流血週日, Bloody Sunday), 1905년 2월혁명 등 세계사과목과, 역사발전에서 마르크스・엥겔스・레닌・스탈린의 업적 등 마르크스레닌주의과목을 시험을 쳤다. 교육성은 성적을 취합한 후 교원들에게 교육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문제점은 학생들이 과학적 사관(史觀)에 입각해 역사적 사실을 구조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점, 마르크스・엥겔스・레닌・스탈린의 업적과 북한의 건국과정을 연관시켜 이해하지 못한 점이었다. 교육성은 학생들의 사관이 철저하지 못한 것은 교원의 사관과 실력이 부족하고 교육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70]

교육성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68) 이. 쓰딸린,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에 대하여』, 모쓰크바: 외국문서적출판사, 1948, 26-27면(NARA, RG 242, SA 2008, Box 7, Item 17).
69) 李載景, 「學生實力의 科學的 分析과 向上對策에 關하여—特히 文學歷史科・數學科를 中心으로」, 北朝鮮教育文化人職業同盟, 『人民教育』 第4卷 第3號(1949년 4월호), 人民教育社, 1949.4, 116면.
70) 같은 글, 127-128면.

따라 역사과목을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① 역사적 사실을 초래한 필연적 조건을 규명하며 특히 현재의 국제·국내 사변들과 구체적으로 결부시켜 여실히 이해시킬 것.
② 역사발전의 지향성을 신념적으로 파악시켜 이 사관에 의한 역사학습에 매진하게 할 것.
③ 역사과를 분석 검토하며 구체적으로 흥미있게 취급하여 학생들이 취미를 가지고 자진학습하는 방향으로 학습의욕을 북돋을 것.
④ 역사과 교과서 분량이 교수시간수에 비하여 과다한 감이 있음에 비추어 이를 중점적으로 지도할 것.
⑤ 연대표·우편물·사진·회화 등을 이용하여 교수내용을 구체화·실제화하기에 힘쓸 것이며 특히 연대표를 활용하여 연대인물(年代人物)에 대한 체계적 파악에 주력할 것.
⑥ 특히 역사담임 교원들은 자체 실력의 향상을 위하여 상시 노력을 기우릴 것이며 학생들과 협력하여 교편물(教鞭物)을 작성·이용하도록 할 것.[71]

교육성은 역사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역사발전의 필연성과 지향성을 이해시키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가르칠 것을 요구했다. 역사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는 연대표·우편물·사진·회화 등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편물을 제작해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교원들에게 역사과목에 대한 연구와 실력 향상을 요구했다. 역사발전의 필연성과 지향성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발전의 우연성을 부정하고 법칙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류사회가 일정한 법칙에 따라 발전한다고 보았고, 인류의 과업은 이 법칙을 배움으로써 욕망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72] 즉 북한의 교육당국은 마르크스주의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역사교육의 원칙을 설정하였다.

북한의 교육성은 교원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때 연대표 등 직관적인 교육재료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는데, 역사교육의 현장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된 직관적인 교육재료는 유물이었다. 교육성은 역사 담당 교원들이 유물을 통해

71) 같은 글.
72)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강연과, 앞의 책, 10-11면.

학생들에게 역사를 교육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 오늘 역사적 연구재료로서의 유물을 볼수 있으며 풍습과 생활언어에서 우리조선민족의 역사적 발전을 연구할 수 있다. 만약 낙랑고분(樂浪古墳)을 교수함에 있어서 평양 학생으로 하여금 직관적 실물을 견학시킬수 있으니 당시 한사군설치(漢四郡設置)로서 조선인민들의 처지를 명백화할수 있으며, 명승지에 있어서 웅장한 유물로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시 지배층의 착취형태, 고상한 미술작품에 있어서는 그것이 인민의 창조적 예술이라는 것 등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민족의 우월성을 고취하며, 자기고향·도시로부터 나아가서 이것이 곧 우리조국의 강토의 한곳으로서 우리선조는 이들한데 착취와 억압을 받아왔으며 그들은 우리를 굴욕하여왔다. 이곳을 더욱 굳게 평화의 곳으로, 행복의 곳으로 전환시켜야 하겠다는 애착심과 건설욕이 생기게 하며 자기감정과 의식을 애국주의사상에 복종시켜야 할것이니 이렇게 자기조국을 굴욕의 원한에 또다시 잠그려하는 반동을 누구인가를 명시해 주어야 한다.73)

교육성은 역사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물로서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분·명승지·미술작품 등을 설정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당국이 유물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들의 궁극적인 교육목표는 학생들에게 외세의 침략성, 지배층의 착취성, '인민'들의 창조성, 조선민족의 우월성, 조국애와 건설의욕, 애국주의사상(愛國主義思想)을 인식시키는 것이었다.

아울러 북한의 정치세력은 학생과 주민들이 유물을 통해 민족의 역사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요 도시에 박물관을 건설하였다. 먼저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7년에 평양박물관을 북조선중앙역사박물관으로 승격시키고, 박물관에 김일성장군실·쏘련군대실·민주건설실을 포함한 현대사실(現代史室)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청진박물관에도 현대사실을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신의주박물관을 새로 개관하고, 현대사 자료와 고구려 유물을 수집해 전시하였다. 또한 함흥과 원산에도 박물관을 신설할 계획이었다.74) 함흥역사박물관은 1947년 8월에 개관했으며, 같은 달에 묘향산

73) 金璃淳, 앞의 글, 131-132면.

에 묘향산특수박물관도 개관하였다. 각 역사박물관에는 선사시대 유물과 낙랑·고구려를 비롯한 각 시대의 유물이 보관되었고, 박물관마다 설치된 해방투쟁관에는 현대사 유물이 보관되었다.[75]

이와 함께 북한 정부는 대학생들에게 유물을 활용한 역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대학에 역사박물관을 설치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은 1949년 10월 1일에 역사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이 박물관의 설립 목적은 "고고학 및 력사학에 있어서 과학적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대학 박물관은 일반인들의 견학과 참관을 목적으로 하는 보통 박물관과 달리 연구자료와 교수자료로 설치되었다. 역사박물관 관장은 김일성대학 조선사강좌 담당인 한길언 교수가 맡았다.[76] 김일성대학 역사박물관에는 석기시대부터 현대까지 고고학·민속학·역사학과 관련된 유물 3,500여 점이 전시되었다.[77]

북한의 교육당국이 역사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학생들의 감정과 의식을 "애국주의사상"에 복종시키는 것이었다. 즉 이들은 연대표·사진 등 직관적인 교육재료와, 현대사실·해방투쟁관이 설치된 박물관을 활용한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애국주의적 기풍"을 심어주는 것이 "학교 교양의 당면된 긴급문제"라고 강조하였다.[78] 북한의 정치세력은 애국주의사상에 대한 교육을 단지 학교교육의 영역에 국한시키지 않았다. 이들은 학생들이 애국주의사상을 배움으로써 조국에 이상사회(理想社會)가 실현되는 것을 열망하게 되고, 그 실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게 되기를 희망하였다.[79]

## 5. 맺음말

북한의 정치세력은 해방 직후부터 새로운 국가 건설에 필요한 민족간부를

---

74) 「博物館 圖書館 및 古蹟保存事業의 槪觀」(1947.9),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7, 104면.
75) 「인민들의 교실로 발전하는 박물관」, 『로동신문』, 1949.7.23.
76) 「김일성대학력사박물관 설비완성」, 『로동신문』, 1949.9.27.
77) 김일성종합대학, 앞의 책, 49-50면.
78) 金瑀淳, 앞의 글, 134-135면.
79) 金廷薰, 「民主國家의 愛國主義」, 『근로자』 제5호(1947년 3월호),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42권, 국사편찬위원회, 2004, 420면.

양성하는데 큰 관심을 기울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7월 7-8일에 교원대학·전문학교·북조선종합대학·의학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고, 북한지역에는 1946년 12월까지 19개의 기술전문학교, 9개의 사범전문학교, 4개의 대학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8년 7월부터 단과대학을 독립시키는 방식으로 고등교육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인민경제부흥발전 2개년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화된 고등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다. 그 결과 1949년 9월까지 총 15개의 정규 주간대학이 설립되었고, 대학생은 1947년에 6,200명에서 1949년에 12,300명으로 급증하였다.

해방 이후 북한의 역사교육정책은 일제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인민학교부터 고급중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에 역사과목이 개설되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역사과를 졸업한 인물들이 역사과목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과 교원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는 력사문학부와 인민역사과가 설치되었으며, 세계사과목과 조선사과목이 개설되었다. 또한 북한의 행정당국은 1947년부터 1948년까지 3차에 걸쳐 학교교육에 필요한 교과서를 편찬했다. 교과서의 목적은 일제 잔재의 청산, 노동에 대한 인식과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인재의 양성, 소련의 문화를 도입해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이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교육자들은 1947년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소련의 사회주의 교육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들은 학생들의 사상과 사회적 활동능력이 교육을 통해 생성된다고 인식하였고,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상과 세계관을 개조함으로써 신 국가의 건설에 필요한 새로운 '근로자'를 만들려고 구상하였다. 이에 따라 역사교육에서도 연대표·사진과 같은 교육재료와 현대사실·해방투쟁관이 설치된 박물관을 적극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역사발전의 필연성과 지향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통해 애국주의사상을 심어주려 하였다. 북한의 정치세력이 애국주의사상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학생들의 애국주의를 건국열(建國熱)로 승화시켜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인민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 ▮ 참고문헌

『로동신문』.

「로마넨코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문(제4160/ш호)」 1946.10(ЦАМО, ф. 172, оп. 614631, д. 27, лл. 41-45).
「소련 각료회의 결정(No.4109-1412c)」, 1947.12.23(ЦАМО, ф. 142, оп. 106601, д. 1, лл. 19-21).
「소련 각료회의 지시(No.8378-pc)」, 1948.6.26(ЦАМО, ф. 142, оп. 106601, д. 1, лл. 6-7).
「슈티코프가 로마넨코에게 보낸 전문」, 1946.10(ЦАМО, ф. 172, оп. 614631, д. 27, л. 27).
『조선교육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도쿄: 학우서방, 1961/1963.
『조선말대사전』 1・2권, 사회과학출판사, 1992.

江原中等教員養成所, 『1947年度 第一會 修了生 學籍簿』, 江原中等教員養成所, 1947(NARA, RG 242, SA 2006, Box 12, Item 24).
교육성 간부부, 『보고原案철(1949년)』, 교육성, 1950(NARA, RG 242, SA 2012, Box 8, Item 67).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5・7・27・42권, 국사편찬위원회, 1987・1989・1997・2004.
金日成,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1권, 국립인민출판사, 1949.
_____, 『김일성선집』 1,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_____, 『김일성저작집』 1,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10년사』, 김일성종합대학, 1956.
리학복(력사지리학부장), 『평양사범대학 간부리력서・자서전・평정서(33인분)』, 평양사범대학, 1949.5(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北朝鮮教育文化人職業同盟, 『人民教育』 第3輯, 人民教育社, 1947.4.
_____, 『人民教育』 第3卷 第2號(1948년 2(8)호), 人民教育社, 1948.3.
_____, 『人民教育』 第4卷 第2號(1949년 2・3월호), 人民教育社, 1949.3.
_____, 『人民教育』 第4卷 第3號(1949년 4월호), 人民教育社, 1949.4.
_____, 『人民教育』 第4卷 第7號(1949년 8・15기념호), 人民教育社, 1949.8.
北朝鮮勞動黨中央本部 宣傳煽動部, 『金日成將軍重要論文集 : 民主朝鮮自主獨立의 길』, 勞動出版社, 1947.3.10(NARA, RG 242, SA 2009, Box 1, Item 166).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강연과, 『사회발전에 대한 맑쓰 레-닌주의적 학설의 제기본문제』, 로동당출판사, 1948.9.18.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근로자』 제3호, 로동신문사, 1949.2.15(NARA, RG 242, SA 2005, Box 1, Item 34).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선천고급중학교위원회, 『졸업생통계표』, 선천고급중학교위원회, 1950(NARA, RG 242, SA 2005, Box 4, Item 32).
北朝鮮人民委員會 企劃局 編纂, 『1946年度 北朝鮮人民經濟統計集』, 北朝鮮人民委員會, 1946(NARA, RG 242, ATIS Document, No.201262).
북조선주재 민정국 교육과장, 「북조선 인민교육과 문화 상황 보고」, 1947(ЦАМО, ф. 172, оп.

614631, д. 27, лл. 11-12).
北朝人委 教育局,『金日成大學發令件』, 北朝鮮人民委員會 教育局, 1947(NARA, RG 242, SA 2006, Box 12, Item 32.1).
송림시인민위원회,『문의서・간부리력서(송림시)』, 송림시인민위원회, 1949.10(NARA, RG 242, SA 2005, Box 8, Item 33).
아. 쓰. 마까렌꼬 著, 朴曉鐘 譯,『教育論文集』, 人民教育社, 1950.1.
원산교원대학 통신교원대학부,『원산통신교원대학 학생모집 요강』, 원산교원대학, 1950.5(NARA, RG 242, SA 2010, Box 3, Item 147).
이. 쓰딸린,『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에 대하여』, 모쓰크바: 외국문서적출판사, 1948(NARA, RG 242, SA 2008, Box 7, Item 17).
자강도인민위원회,『간부리력서(자강・회천 초중간부)』, 자강도인민위원회, 1949.10(NARA, RG 242, SA 2005, Box 8, Item 33).
조선인민군 528군부대,『〈학습재료〉 당건설』 제3부, 조선인민군 528군부대, 1950.3(NARA, RG 242, SA 2009, Box 1, Item 136).
조선중앙통신사 편,『조선중앙년감(1949년)』, 조선중앙통신사, 1949.
淸津教員大學,『淸津教員大 履歷書綴』, 淸津教員大學, 1947(NARA, RG 242, SA 2006, Box 12, Item 31).
청진의학대학,『청진의학대학 리력서』, 청진의학대학, 1949(NARA, RG 242, SA 2005, Box 8, Item 31).
칼. 맑쓰・프. 엥겔쓰,『공산당선언』(100년 기념호), 모쓰크바: 외국문서적출판부, 1948.
太成洙 編作,『〈教育學 第一輯〉 教養論』(上), 勞動新聞社, 1947.11.30(NARA, RG 242, SA 2012, Box 4, Item 54).
_____,『〈教育學 第二輯〉 教授論』(上), 勞動新聞社, 1948.8.30(NARA, RG 242, SA 2009, Box 4, Item 95).
_____,『〈教育學 第三輯〉 學校論』, 勞動新聞社, 1949.10.30(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평양여자사범전문학교,『간부 이력서』, 평양여자사범전문학교, 1950(NARA, RG 242, SA 2005, Box 8, Item 35).
한계인민학교,『상장・수업증서・졸업증서(이태호)』, 한계인민학교, 1949(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咸興中等教員養成所,『1947年度 第一會 修了生 學籍簿』, 咸興中等教員養成所, 1947(NARA, RG 242, SA 2006, Box 12, Item 24).

國土統一院,『北傀人物』, 國土統一院, 1971.
김국후,『평양의 소련군정』, 한울, 2008.
소동호,『교육사상사 : 서양편』, 교육과학사, 2004.
신효숙,「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개혁」,『현대북한연구』 제2권 제1호, 경남대 북한대학원, 1999, 155-217면.
_____,「해방후 북한 고등교육체계의 형성과 특징—김일성대학의 창립과 운영」,『북한연구학회보』 제2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1998, 195-224면.
우동현,「1945-1950년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과 성격」,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6.

【Abstract】

## The History Education System and Educational Ideology of North Korea from 1945 to 1949 —Focusing on higher education—

Kim, Seon-Ho*

The North Korean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decided in July 1946 to establish faculty colleges, vocational schools, universities and medical schools. Since then, the North Korean People's Committee has reorganized its tertiary education system in July 1948, in a way that separates colleges. In addition, the North Korean People's Committee intensively fostered high-level human resources capable of carrying out the two-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promoted since 1949.

Since 1946, the education authorities in North Korea have cleared the educational remnants of Japanese imperialism and pursued history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Marxism-Leninism. History courses have been opened at all schools in North Korea, and history graduates from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education have taken charge of history course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orld history courses and Korean history courses were offered. The education authorities in North Korea planned to clear the remnants of Japanese imperialism through history education and to educate students about new perceptions of labor and industry. Also, by educating history, they envisioned to cultivate talented people who could create a new national culture by combining Joseon and Soviet cultures.

North Korean educators have actively embraced Soviet socialist education theory based on Marxism-Leninism since 1947. They recognized that students' ideas and social activities were created through education. In addition, educators in North Korea envisioned to create new workers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country by remodeling students' ideas and worldviews through schooling.

* Researcher,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Keywords: North Korean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Kim Il-Sung University, Pyongyang Teacher's College, Secondary Teacher Training Center, Korean History Compilation Association, North Korea Central History Museum, Marxism-Leninism, Konstantin Dmitrievich Ushinsky.

접수일: 2019.11.13. ‖ 심사일: 2020.01.13. ‖ 게재확정일: 2020.02.07.